

익산 '3산단 분양 완료'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 제도 개선 효과 청년 일자리 창출 ·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익산시가 공격적인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제3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을 100%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분양 완료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인구유입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가 모아진다.



투자유치 전략과 제도 개선의 성공적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제3산단은 지난 2017년 말까지 분양 실적이 40%대로 저조했지만 익산시가 수요자 맞춤형 기업마케팅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기업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시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추가 등을 추진해 2018년 67%, 2019년 86%, 2020년 98%로 매년 분양 계약률을 높여왔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무IC를 잇는 진입도로 개설, KTXSRT가 정착하는 익산역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제3산단은 현재 총 57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하고 있으며 1,926명의 근로자가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으로 33개 기업이 공장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쯤이면 입주까지 마무리해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3산단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는 청년과 주민들이 창업, 사무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를 마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유오피스 '무슨이리아' 개소

익산시, 청년단체 품격사회협동조합이 창인동에 문 열어

익산시는 청년과 주민들이 창업, 사무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를 마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 청년단체인 품격사회협동조합이 지난 14일 창인동에 익산 최초의 공유오피스 무슨이리아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익산시의회 김중영 의원, 임형택 의원, 바르게살기운동본부의 조방영 익산시 협의회장, 익산시 청년회장 네트워크 양정민 위원장 등 지역 단체들과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참가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시설 점검과 시범브리핑 등이 진행됐다.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청담 요양원 건물 2층에 통지를 튼 공유오피스는 지역 청년들의 1인 창업과 소규모 팀 빌딩, 익산역 방문객의 사무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시는 지난해 도내 60여 신청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 총 1억7,600만원(도비 4,800만원, 시비 1억2,200만원, 자부담 1,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 1년간 공유오피스 개소를 준비했다.

이번 사업은 공유를 통해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익산은 두 번째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준형 이사장은 "무슨이리아를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수한 정책을 개발지원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군산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 단속

호수공원 아이파크 견본주택 주변 대상 대대적인 현장 단속

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에 따른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대대적인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권 정식계약 체결 이전인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 행위(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찢다방)가 집중 단속 대상이며 당첨권 불법증거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단속기간에도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함과 동시에 위법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현장뿐만 아니라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 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며, "집값 안정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군산시에 군산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디오션시티 디샵2차 단속 중 당첨자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알선하는 외지인 찢다방으로 의심되는 자를 경찰과 공조, 적발해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풍황자원 조사 착수

군산시가 육도면 해역 내 풍황계측기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풍황자원조사에 돌입했다.

이번에 설치된 풍황계측기는 고정식 1개와 부유식 2개로, 고정식은 지난 3월 말도 서측에 이달에 어청도 서측과 방축도 북측에 부유식을 설치하며, 총 3개 지점 내 설치를 완료했다.

부유식 풍황계측기 2개는 Nomard H111 방식(※극한조건에서 가능하도록 설계된 알루미늄 베이스로 해상기관 관측용 부이 플랫폼, 1940년 미 해군

에서 고안된 디자인)의 국내에서 제작한 부유체인 K-lida와 영국 Zephyr사의 Z300 계측 센서 모델로 지난 14일 비응항에 도착해 최종 검수를 마치고, 어청도와 방축도 해역으로 이동했다.

풍황자원 조사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약 1년 간 각 지점의 풍황을 집중분석하고 군산 해역 전체의 풍황자원 연구를 통해 해상풍력 적합지역을 발굴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풍황자원 조사

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여정을 위한 뜻을 올린 것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는 목표 지점까지 좌초되지 않고 제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사업비 35억원 규모인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공동의 K-그린 뉴딜 대표 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군산시가 선정돼 풍황자원과 지역 수용성 등 해상풍력 사업의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지역 특성 '별별여행 시티투어' 호응

익산시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15일 지역을 방문한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 박사과정 중국인 유학생 등 12명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형 별별여행 시티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별별여행 시티투어는 관광평소 탐방과 함께 합리관옥체험관에서 1박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백제의상을 입고 무용과 함께 관광지 곳곳을 둘러보며 공연과 체험을 즐기는 투어 프로그램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참여 학생들은 중국어 해설을 들으며 관광평소마다 생생한 역사문화 체험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투어버스 운영은 주말·공휴일 1일 1회로 오는 11월 말까지 운행되며 신청자가 5인 이상이면 출발하게 된다.

매회 출발시간은 오후 1시 30분(4시간 30분 소요)이며 익산역에서 출발해 문화예술의 거리(아트센터),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 용인생태습지공원 등을 탐방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탐승예약은 전화(☎10-5583-0558) 이용요금은 일반인 6천원, 10인 이상 단체·어린이(초등학생까지)·경로·장애인은 5천원이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115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9만2,283건 115억원을 부과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1588-5663)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코로나19 극복 정신건강 걷기 챌린지 실시

익산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정신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익산시보건의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총 10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워크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걷기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내 운동이 어려운 요즘 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따로, 또 같이' 걷기 운동을 하며 일상 속 활기찬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플랫폼인 '워크온' 어플을 내려받아 익산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예약하면 된다.

총 10일 동안 7만보(하루 최대 7천보)를 달성하면 되며, 챌린지 기간 동안 목표 달성 시 선착순 200명에게 성공사은품(모바일 커피쿠폰 1+1)도 증정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